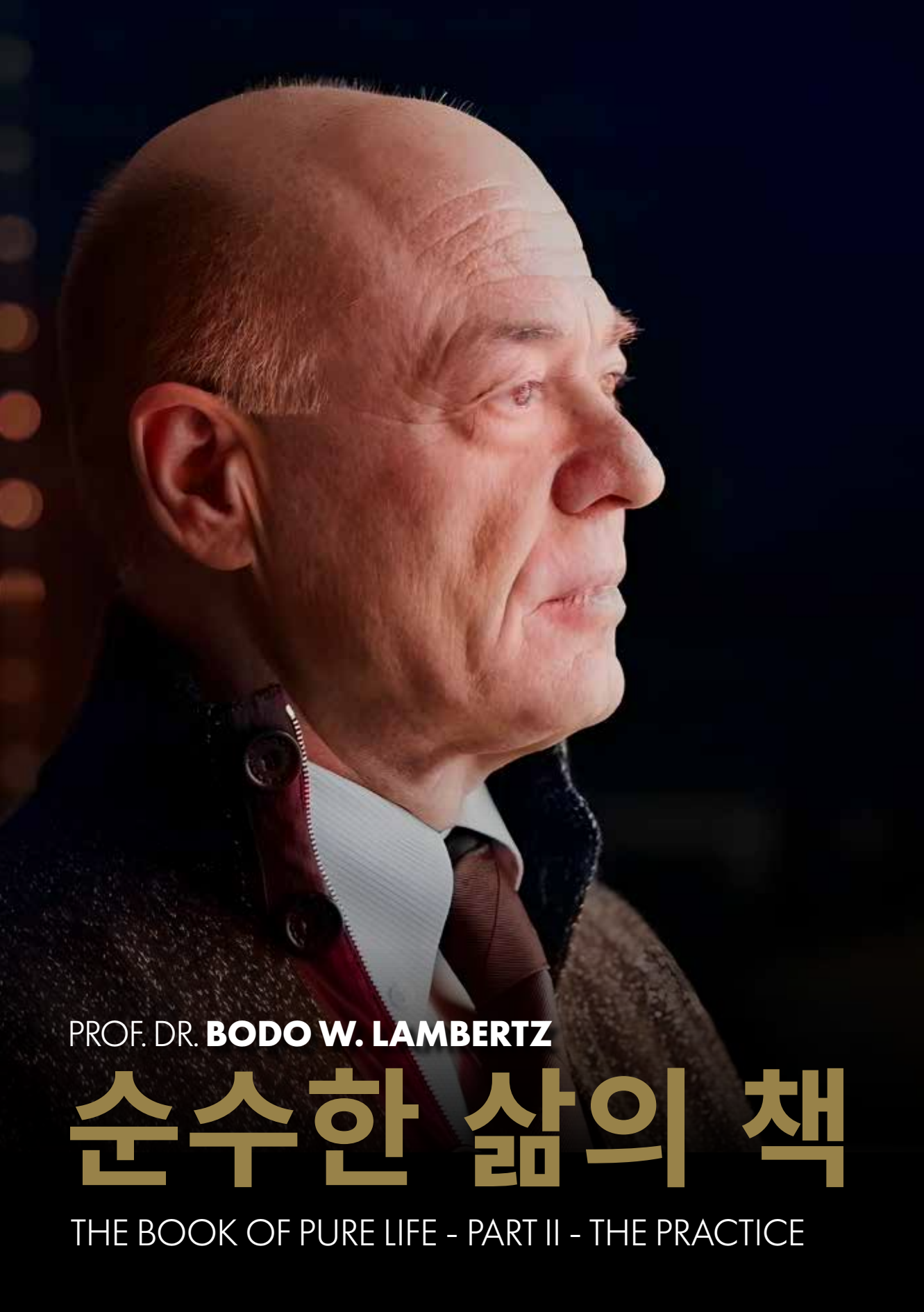




PROF. DR. **BODO W. LAMBERTZ**

순수한 삶의 책

THE BOOK OF PURE LIFE - PART II - THE PRACTICE

SIQT | Schweizer Institut
für Qualitäts-tests GmbH



Swiss most innovative midsize
companies 2026

Household & Consumer Goods

AWARD WINNER
INNOVATION PERFORMANCE

Swiss Intellectual Properties & Licensing AG

Study 01/26, Patent performance in the period
09/24–10/25, top 20%, wgl.ch/5467



순수한 삶의 책 II

The Book of Pure Life II

심화 — 순수한 삶의 수련

초판 · 2026

APANI · AS PURE AS NATURE INTENDED AG · Wilen bei Wollerau · 스위스

제1권을 그저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모든 이에게 — 순수한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하는 것임을. 날마다.



서문

이 저작의 제1권은 순수한 삶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을 품은 학생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것이 흘러드는 한 문장에 이르기까지. 순수함은 길이고, 사랑은 목표라는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 그 책이 길을 떠난 뒤로, 같은 물음이 여러 언어로,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듭 제게 닿아 왔습니다. 그 물음은 이것이 사실입니까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내일 아침 일곱 시에, 입니다. 이 제2권이 저의 대답입니다.

이 권에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제1권에 있고, 흥정할 수 있는 것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권에 있는 것은 수련입니다. 고요의 십오 분에서 놓아주는 기술까지, 모두 스물아홉입니다. 어느 하나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평생 그것들을 모아 왔습니다. 학생 시절의 다락방에서, 포도밭에서, 작업장에서, 천 개의 식탁에서, 청음실에서, 알프스와 카리브 사이의 여행길에서. 그것들은 신념을 일상으로 바꾸는 손의 동작들입니다. 이 권에 담긴 모든 것을 저 스스로 수련해 왔습니다. 많은 것은 지금도 수련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졸업이 없고, 그것이 이 학교의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은 제1권과 다르게 읽어 주십시오. 제1권은 천천히 읽히기를 바랐습니다. 이 권은 쓰이기를 바랍니다. 한 장을 고르십시오.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주십시오. 날마다, 요란 없이. 수련이 작은 것은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삶을 짓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뒤로, 저는 거창한 결심을 믿지 않습니다. 포도밭은 해마다 이를 새로 가르칩니다. 빈티지를 만드는 것은 폭풍이 아니라, 수많은 눈에 띄지 않는 날들입니다.

이것은 부록도 후기도 아닙니다. 하나의 약속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말 그대로의 뜻에서, 당신 손에 놓인 그 절반입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제가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을 당신께 바랍니다. 고요한 시작 하나, 걸어 낸 길 하나, 정확한 칭찬 하나, 몸소 마련한 작은 아름다움 하나 — 그리고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빌렌 바이 볼레라우에서, 2026년 여름

Prof. Dr. Bodo W. Lambertz
창립자이자 발명가 · APANI
— As Pure As Nature Intended

차례

서문	3
프롤로그 — 정상에서 골짜기로	9
제1서 — 고요한 원소들	11
고요를 수련하기 — 매일의 십오 분	11
호흡 — 첫 번째 양식	11
물 — 첫 번째 순수한 원소	12
불 — 가장 오래된 동반자	13
빛 — 태양에서 촛불까지	14
공간 — 고요한 고백으로서의 거주	14
제2서 — 하루 속의 몸	17
걷기 — 발로 생각하기	17
손 — 손가락으로 생각하기	18
절제 — 족함을 아는 기술	18
잠 — 동맹으로서의 밤	19
시간 — 유일한 재산	20
디지털의 순수함 — 기기의 주인으로 남기	21
일곱째 날 — 씬의 기술	22
제3서 — 더불어 사는 기술	23
말 — 순수한 언어	23
예의 — 작은 형식들	23
편지 — 느린 언어	24
선물하는 기술	25
용서 — 정화	26
감사 — 저녁의 결산	27
제4서 — 자라나는 것	29

정원 — 문 앞의 스승	29
나무 — 모레를 위해 심기.....	29
여행 — 길 위에서도 순수하게	30
수집 — 안목의 기술	31
기억 — 삶의 기록고	32
물려주기 — 스승과 제자에 관하여	33
아름다움 — 영혼의 일용할 양식.....	34
 제5서 — 높은 수련.....	 35
경탄 — 깨어 있는 시작	35
평정 — 영혼의 내후성	36
놓아주기 — 가벼운 손	37
 에필로그 — 수련이 우리를 되받아 수련한다	 39

프롤로그 — 정상에서 골짜기로

이 저작의 제1권은 하나의 정상에서 끝났다. 애정과 존중에서 자라나는 사랑, 그리고 견줄 데 없는 삶의 감각이라는 정상에서. 그곳에 다다른 사람은 책을 덮고 만족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정상은 머물러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보기 위해 오르고, 그다음에는 삶이 펼쳐지는 골짜기로 내려가, 본 것을 나날 속으로 가져간다. 이 제2권은 두 손 가득 안고 내려가는 하산이다. 순수한 삶의 방향을 이어받아 더 깊은 곳으로 이끈다. 새로운 진리로 써가 아니다. 진리는 제1권에서 이미 말해졌다. 그 대신 수련으로써다. 구체적이고, 날마다 되풀이할 수 있는 손의 동작들으로써, 철학은 연장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된다.

이것이 이 저작이 독자에게 빛진 마지막 정직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만 한 삶의 형식은 아직 자기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오직 수련한 것만을 소유한다. 피아니스트는 독서로 소나타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도 농부는 지도로 비탈을 알지 못하며, 인간은 동의만으로 순수한 삶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책들은 가르침의 속편이 아니라 그 연습실이다. 같은 정원으로 통하는 스물아홉 개의 문. 모두 열 필요는 없다. 단 하나를 날마다 열면, 시작으로는 충분하다. 나머지는 포도밭에서 모든 것이 그러하듯 따라온다. 뿌리로부터, 시간과 더불어, 저절로.

이 권의 차례는 체계가 아니라 삶을 따른다. 제1서는 고요한 원소들을 모은다. 고요와 호흡, 물과 불, 빛과 공간. 하루가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이다. 제2서는 몸을 하루 속으로 데려간다. 걷기와 손, 절제와 잠, 시간, 기기들, 그리고 일곱째 날. 제3서는 더불어 사는 기술을 수련한다. 말과 예의, 편지, 선물하기, 용서와 감사. 제4서는 자라나는 것에 속한다. 정원과 나무, 여행, 수집과 기억, 물려주기와 아름다움. 그리고 제5서는 마지막으로 높은 수련에 오른다. 경탄, 평정, 놓아주기. 모든 손의 동작이 흘러드는 마음가짐이다. 각 장은 저마다 홀로 서고,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 함께 모이면, 부제가 약속하는 것이 된다. 곧 심화다. 더는 무엇을, 왜가 아니라 — 어떻게를, 아침마다 새롭게.

제1서 — 고요한 원소들

고요를 수련하기 — 매일의 십오 분

제1권은 고요를 모든 음악의 어머니라 불렀다. 이 장은 그것을 하나의 약속된 시간으로 바꾼다. 세상이 우연히 허락할 때만 이따금 찾아오는 고요는 선물이지만, 날마다 스스로 찾아가는 고요는 힘이다. 수련은 무장을 해제시킬 만큼 단순하다. 하루 십오 분,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서, 기기 없이, 과제 없이, 목적 없이. 앉는다. 숨 쉰다. 아무것도 송신되지 않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 듣는다. 처음 며칠은 시끄럽다. 시끄러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다. 보내는 데 익숙해지고 받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계속 앉아 있다. 일주일이면 머리가 조용해진다. 한 달이 지나면, 고요가 처음부터 말하고 있던 것이 들리기 시작한다.

고요가 말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중요하다. 미뤄 둔 결정이 나선다. 잊고 지낸 친구가 떠오른다. 온종일 목살당한 몸이 입을 연다. 착상이 찾아온다. 소음보다 조용하기에 소음 속에서는 결코 오지 않는 그런 착상이. 위대한 문화들은 이를 알고 고요를 건축에 새겨 넣었다. 회랑을, 정원을, 나무 아래 벤치를. 순수한 삶은 그것을 하루 속에 새겨 넣는다. 그리고 보답은 십오 분을 훌쩍 넘어선다. 날마다 고요를 수련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니고 다닌다. 다툼에서 더 차분해지고, 판단에서 더 느려지며, 흔들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 자신을 억제해서가 아니라, 흥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를 자기 안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십오 분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요새다. 무에서 지어지고, 그리고 버틴다.

호흡 — 첫 번째 양식

첫 모금의 물보다 먼저, 첫 끼니보다 먼저, 인간의 첫 번째 양식이 있다. 호흡이다. 몸은 하루 이만 번 세상을 들이고 되돌려 준다. 그리고 그 숨결 가운데 알아차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호흡은 인간의 전 장비 가운데 유일무이하다. 저절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 기능이기 때문이다. 심장은 명령을 듣지 않고, 소화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그러나 호흡은 의지와 자연 사이의 문턱에 서 있으며, 바로 그렇기에 수천 년 동안 모든 침잠의 학파가 쓰는 도구였다. 정신이 몸에, 몸이 정신에 가닿는 다리인 것이다. 호흡을 이끄는 사람은 사람 전체를 이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얇이며, 게다가 아무 값도 치르지 않는다.

수련은 문턱의 수련이다. 사람의 하루는 문턱들로 이루어진다. 어려운 대화가 기다리는 문 앞, 식사와 첫 술 앞, 시끄러운 하루 끝에 제 집으로 들어서기 전, 청음실의 첫 음 앞. 그 문턱마다 세 번의 호흡.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두 배 더 천천히 내쉰다. 비밀은 긴 날숨에 있다. 그것은 몸이 백만 년 전부터 평온으로 응답해 온 신호다. 세 번의 호흡은 이십 초가 걸리고, 문을 지나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 뛰어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이를 침잠이라 불렀고, 그 말은 정확하다. 하루가 흘러 놓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온전한 자로서 들어서는 것이니.

문턱 호흡을 몇 주 수련한 사람은 그 조용한 확장을 발견한다. 호흡이 기압계가 되는 것이다. 얇고 높은 숨결에서, 실수가 되기 전의 조급함을 알아차린다. 막힌 숨에서, 독이 되기 전의 삼킨 분노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사태의 한 복판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 세 번의 느린 숨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는 이 권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수련이며, 아마 가장 휴대하기 좋은 수련일 것이다. 장소도, 시간도, 장비도 필요 없다. 삶의 첫 양식이 곧 그 첫 약이기도 하다는 기억만 있으면 된다. 제1권은 음과 음 사이의 고요를 듣는 법을 가르쳤다. 호흡은 그 고요를 몸속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모든 것을 떠받치는 쉽다.

물 — 첫 번째 순수한 원소

제1권이 포도주를, 커피를, 차를 말하면서 물에 대해 침묵한 것은 기이한 맹점이었다. 물이야말로 이 책장들이 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도 말이다. 물은 첫 음료이자 마지막 음료이고, 몸의 삼분의 이를 이루는 원소이며, 포도밭과 논과 송어와 생명 자체의 조건이다. 그리고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물질이다. 혹은, 어떻게 다루어졌느냐에 따라, 가장 배신당한 물질이기도 하다. 물은 순수한 모든 것이 그러하듯 제 출신을 지니고 다닌다. 위대한 샘물은 제 바위의 맛이 난다. 화강암이나 석회암의 맛, 수십 년이 걸렸을지 모를 산속 여정의 맛이. 물을 주의 깊게 마시는 사람은 지질을 마시는 것이다.

물의 수련에는 두 면이 있다. 감각의 면과 도리의 면이다. 감각의 면은 이렇다. 물을 포도주처럼 대하라. 앗을 가지고 고르고, 품위를 가지고 내놓아라. 아름다운 잔에, 알맞은 온도로, 식탁에서는 결들이가 아니라 제 목소리로. 손님에게 위대한 물을 위대한 빈티지와 같은 진지함으로 따라 주는 집은, 손님을 먼저 놀라게 하고 이윽고 감화시킨다. 포도주로 단련된 미각은 물속에서 고요한 온 세계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도리의 면은 더 무겁다. 물은 첫 번째 기동인 결속이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되는 원소다. 살아 있는 샘 앞에서 본 사람은 안다. 여기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것을. 그것을 지키는 일. 모자란 곳에서는 아끼고, 어디에서나 경

외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가장 액체다운 모습을 한 감사다. 그리하여 원은 이 집의 자연법으로 닫힌다. 원본의 백 퍼센트. 물에서 자연은 원본을 완성된 채로 건네 주었다. 우리의 유일한 소임은 그것을 망치지 않는 것 — 그리고 잊지 않는 것이다.

불 — 가장 오래된 동반자

인간은 집을 갖기 전에 불을 가졌고, 집은 불 둘레에 발명되었다. 그 반대가 아니다. 불은 우리 종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다. 우리를 데우고, 지키고, 먹이고, 모아 주었으며, 무엇보다 깊이 우리의 저녁을 빛어냈다. 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모든 하루는 불빛 속에서 끝났고, 그 빛 속에서 이 저작이 다루는 것들이 태어났다. 긴 대화, 이야기, 노래, 둘러앉은 원. 제1권의 불의 시간은 그 이름을 은유가 아니라 유산으로서 지닌다. 그리고 진짜 불이 집들에서 사라진 것은 이 시대의 조용한 상실에 속한다. 모으지 않고 데우기만 하는 난방과, 진정시키지 않고 깜박이기만 하는 화면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누구나 알면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불은 사람을 고요하게 하는, 세상의 유일한 깜박임이다. 화면은 들뜨게 하고, 불꽃은 풀어 준다. 같은 움직이는 빛, 정반대의 작용. 그 차이는 소음과 음악의 차이이다.

수련의 이름은 이렇다. 불에게 리듬 속의 자리를 주어라. 일주일에 한 번 진짜 불을. 벽난로가 있는 곳에서는 벽난로를, 정원에서는 화로를, 둘 다 없는 곳에서는 식탁 위 정직한 촛불 한 무리로 족하다. 가르침은 이미 작은 불꽃 속에 깃들여 있으니. 불은 손수 피울 것. 인내와 숨씨로. 불쏘시개에서 장작까지, 지름길 없이. 불 피우기는 인류 최고령의 장인 시험이며, 이 저작이 가르치는 모든 것의 수련이기 때문이다. 준비, 차례, 원소 앞의 겸손, 끊이지 않는 주의. 불은 걸다리로 가질 수 없다. 임재를 요구하며, 바로 그것이 불의 선물이다. 그다음은, 사람들을 그 둘레로. 불은 독주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다. 불의 좌석 배치는 원이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적 형식이다. 누구나 누구든 볼 수 있고, 지위가 차지했을 한가운데를 불꽃이 지킨다.

주마다의 불을 한 철 지키는 사람은 그 둘레에 무엇이 깃드는지 알아차릴 것이다. 식탁이 내주지 못한 대화들. 아무도 민망하게 하지 않는 긴 침묵 — 모두가 잉겔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도 남아 있는 아이들 — 혹은 바로 그래서 남은 아이들. 불은 반(反)화면이다.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열어 준다. 그리고 거의 지나가는 말처럼, 이 권이 곳곳에서 수련하는 시간에 대한 태도를 가르친다. 불에는 저녁처럼, 삶처럼 국면이 있기 때문이다. 환한 타오름, 참된 온기가 깃드는 길고 깊은 잉겔볼, 그리고 불들어서는 안 될 품위 있는 사그라들. 잉겔볼은 불의 슈페트레제다. 불꽃보다 잉겔볼을 아끼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에게서 이 저작의 가장 젊은 가르침을 배운 것이다.

빛 — 태양에서 촛불까지

빛만큼 방과 시간을 온전히 빚어내는 원소는 없고, 빛만큼 무심히 다루어지는 원소도 없다. 현대 세계는 빛을 민주화했고 그래서 그 가치를 떨어뜨렸다. 어디서나 얻을 수 있고, 어디서나 똑같다. 아침에도 한밤에도, 사무실에서 저녁 식탁에서도, 똑같이 평평한 밝음. 극적 전개가 없는 영원한 낮이다. 그러나 인간은 흘러가는 빛의 피조물이다. 백만 년 동안 아침은 비스듬한 금빛을, 정오는 수직의 명료함을, 저녁은 깊은 붉음을, 밤은 불과 그다음의 어둠을 뜻했다. 몸은 빛을 시계처럼 읽고, 그에 맞추어 가장 깊은 안의 운동을 조율한다. 잠을, 깨어 있음을, 기분을. 균일한 빛 속에 사는 사람은 바늘 없는 시간 속에 살면서, 제 안의 무엇인가가 방향을 잃는 것을 의아해한다.

빛의 수련은 하루를 따른다. 아침에는 바깥으로, 진짜 빛으로. 얼굴에 받는 십 분의 햇빛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자명종이며, 어떤 규율보다 정확하게 몸속 시계를 맞춘다. 낮에는 될 수 있는 한 창가에서 일할 것. 이따금 먼 곳과 초록을 바라보도록 허락받은 눈은, 그것을 세월로 갚는다. 그리고 저녁에는, 순수한 집을 여느 집과 가르는 결정적 전환이 온다. 조도를 낮추는 일을 의식으로 삼는 것이다. 상을 차릴 때 일의 빛은 따뜻한 빛에 자리를 내준다. 불의 시간이 시작되면 낮은 광원들이 이어받는다. 등잔, 불, 촛불. 촛불은 수천 년이 내준 상식에 값한다. 그것은 살아 있는 유일한 빛이다. 숨 쉬고, 흔들리고, 응답한다. 그리고 그 빛은 얼굴들에게, 정직한 스피커가 음악에게 하는 일을 한다. 깊이를 돌려주는 것이다. 촛불 켜 저녁 식탁은 같은 식탁이면서 다른 나라다. 대화는 낮아지고 참되어지며, 시간은 느려지고, 얼굴은 아름다워진다. 빛이 아침해서가 아니라, 모으기 때문이다. 그저 켜는 것이 아니라 빛을 지휘하는 것. 이것이 아마 순수한 삶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술이며 — 가장 배우기 쉬운 기술 가운데 하나다.

공간 — 고요한 고백으로서의 거주

제1권의 심리학은 사물이 초대를 품고 있으며 끝내는 언제나 환경이 이긴다고 가르쳤다. 이 장은 그 공간적 귀결을 끌어낸다. 집은 모든 초대 가운데 가장 큰 초대다.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물인 것이다. 집은 결코 종립이 아니다. 평온으로도 산만함으로도, 대화로도 물러남으로도, 임재로도 도피로도 초대한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날마다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순수한 삶에서 거주는 장식의 화제가 아니라 하나의 고백이다. 공간은 나직이, 그러나 씬 없이, 그 거주자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말한다. 그리고 그 문장대로 그를 빚어 간다.

순수한 공간의 원칙은 온 집의 원칙을 벽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참된 재료. 늙어 갈 수 있는 나무, 서늘함을 주는 돌, 양모와 아마, 역사를 입는 가죽. 손길에 응답하고 닳는 대신 세월과 더불어 아름다워지는 표면들. 날마다 진짜를 만지는 사람은 가짜를 잊어 가기 때문이다. 적은 물건, 진짜 물건. 방은 없는 것으로 숨 쉰다. 비워 둔 자리 하나하나가 고요의 조각이며, 짝 들어찬 방은 눈에 보이는 소음이다. 하나의 중심. 어느 집이든 옛 뜻에서의 화로가 필요하다. 식탁, 불, 청음실. 집이 모여드는 자리, 물건보다 뜻으로 더 넉넉히 꾸며진 자리. 그리고 강제가 아니라 의식으로서의 질서. 저녁마다 물건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은 다가올 날에 드리는 절이다. 집에 바치고 제 미래의 아침에 선사하는 이 분의 보살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철학을 건축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그의 집은 그와 함께 철학을 수련한다. 그 자신이 너무 지친 날에도. 이것이 충실의 가장 조용한 형태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기억하는 벽들.

제2서 — 하루 속의 몸

걷기 — 발로 생각하기

인간은 걷는 동물이다. 지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한 가지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토록 온전히 지어지지 않았다. 곧게 서서, 지치지 않고, 생각에 잠겨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는 일. 우리 종은 다른 무엇을 할 줄 알기 훨씬 전에 이 움직임으로 대륙들을 건넜다. 백만 년 동안 걷기는 운동도 결심도 아닌, 깨어 있는 삶의 기본 상태였다. 생각하고, 말하고, 슬퍼하고, 계획하는 일이 걷는 이의 속도로 이루어졌다. 현대 세계는 이 상태를 몇십 년 만에 폐지했다. 사람은 앉고, 타고, 눕는다. 그러고는 몸과 마음에 미친 결과에 놀란다. 그러나 진단은 단순하고 약은 공짜다. 더는 걷지 않는 몸은 제 가장 오래된 리듬을 잃는다. 정신도 그와 함께 제 걸음걸이를 잃는다. 생각에는 빠르기가 있고, 그것은 걷기의 빠르기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기의 위대한 정신들은 이를 알았고, 진짜 일을 걸으면서 해냈다. 가로수길에서, 물가에서, 동네를 돌며, 정원에서. 걸음은 책상이 얹어 놓은 것을 풀어낸다.

수련은 날마다의 길이다. 삼십 분에서 한 시간, 바깥에서, 어떤 날씨에도. 제2의 피부가 날씨를 즐거움으로 바꾼다. 기기 없이, 이어폰 없이. 반주 딸린 산책은 걷기가 아니라 자리만 옮긴 앉아 있기이기 때문이다. 형편이 닿는 곳에서는 쓸모 있는 일을 차 대신 걸어서 한다. 시장을, 빵을, 동네의 방문을. 걸어서 하는 일상은 의지력이 들지 않는 유일한 운동 형태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걷는 대화를. 친구와, 아이와, 배우자와. 마주 보는 대신 나란히. 마주 보면 막히는 말이 나란히 서면 나온다는 것은 영혼의 목자들과 좋은 아버지들의 오랜 비밀이다. 앞을 향한 공동의 시선, 리듬, 걷기가 어색함 없이 허락하는 멈춤들. 세상의 어떤 식탁도 들길만큼 부드럽게 어떤 매듭들을 풀지 못한다.

보답은 세 겹이며, 드물게 미더운 것이다. 몸은 씹으로써 보전된다. 날마다의 길은 첫 번째 약기의 손질이며, 요란하지 않기에 오래간다. 정신은 제 걸음걸이를 되찾는다. 결정 하나를 세 번 산책에 데리고 나가 본 사람은, 서른 개의 목록을 만든 뒤보다 그것을 더 잘 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게는, 곳이고향이 된다. 풍경도, 도시도, 골짜기도, 걸어 본 사람에게만 속한다. 걷는 사람은 제 곳의 모퉁이를, 냄새를, 계절을 알고, 인사하고 인사받는다. 그는 그저 어딘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이다. 자동차는 경로를 안다. 길을 아는 것은 발뿐이다. 그리고 순수한 삶은 처음부터, 그 말의 모든 뜻에서, 하나의 길이다.

손 — 손가락으로 생각하기

인간은 머리로 세계를 얻은 것이 아니라 머리와 손의 쌍두마차로 얻었다. 오늘날의 과학은 둘이 서로를 만들어 냈음을 안다. 뇌는 손의 과제로 자랐고, 손은 뇌의 설계로 정교해졌다. 인간에게서 손끝만큼 뇌와 촘촘히 이어진 것은 없다. 손은 바깥으로 내어놓은 생각이며, 이 저작의 모든 수공 — 바느질도, 술 창고의 일도, 젊은 창립자의 땀땀도 — 이 혼인의 증거다. 그럴수록 시대가 이 경이를 무엇으로 줄여 놓았는지는 더 눈여겨볼 만하다. 두 가지 몸짓으로다. 쓸기와 두드리기.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손이 유리 위에서 나날을 보낸다. 그리고 수천 년 손으로 생각해 온 인간 속의 무엇인가가 일 자리를 잃고, 시대가 많은 이름을 붙였으되 아무 설명도 갖지 못한 저 기묘한 안절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수련은 무장을 해제시킬 만큼 곧다. 날마다 한 가지, 결과가 남는 일을 손으로 할 것. 요리도 친다. 어차피 차례가 오기에 가장 손쉬운 형태다. 치대 주기를 기다리는 반죽, 칼 아래 떨어지는 채소는 대기 중인 나날의 수공이다. 고치는 일은 갑절로 친다. 조여 놓은 철물, 기워 놓은 단, 기름 친 경첩은 재산의 돌봄이자 손의 단련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제1권은 손질을 존중의 전례라 불렀다. 여기서 그것은 생각의 전례이기도 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손글씨는 따로 언급될 자격이 있다. 그것은 정신의 수공이기 때문이다. 펜으로 일을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 메모를, 계획을, 하루의 결산을 — 기기 앞에서와는 증명 가능하게 다르게 생각한다. 더 느리게, 더 자기답게, 더 오래가게. 손은 본질만을 통과시키는 체다.

바쁜 손의 품삯은 두 겹의 평화다. 첫째는 알려져 있으면서도 번번이 놀라움으로 경험된다. 손이 일하면 머리가 조용해진다. 반죽하기, 깎기, 조이기, 김매기는 서양에서 가장 손닿기 쉬운 명상이다. 근심은 손가락의 리듬을 따라오지 못하고 뒤쳐진다. 둘째 평화는 작품의 평화다. 끝에 무엇인가가 서 있다. 빵이, 고쳐진 의자가, 씌어진 종이가. 그리고 이 수수한 서-있음이, 발송 완료된 그 어떤 메시지도 끝내 닿지 못하는 인간 속 한 자리를 먹인다. 과학은 이를 자기 효능이라 부른다. 이 집의 장인들은 더 단순하게 부른다. 일을 마친 저녁이라고. 무엇인가가 끝났을 때에만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손은 그것을 안다. 다시 손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절제 — 족함을 아는 기술

제1권은 향유를 금욕에 맞서 지켰다. 이 장은 향유를 두 번째의 더 은밀한 적으로부터 지킨다. 곧 언제나로부터다. 향유에는 어떤 부도 매수하지 못하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이다. 향유는 대비를 먹고 산다. 날마다 마시는 위대한 포도주는 음

료가 되고, 끓이지 않는 잔치는 장식 달린 일상이 되며, 모든 것을 늘 얻을 수 있음은 모든 것을 값없이 만드는 가장 조용한 길이다. 제1권은 제 장들의 박자로 말했다. 드물게, 성대하게, 감사하며, 함께. 이 장은 그 원리에 이름과 수련을 준다. 절제는 가난한 이의 단념이 아니라 부유한 이의 지혜다. 족함을 아는 기술. 그 지점을 넘어서면 더 많음이 더는 많음이 아니라 적음이 되는, 그 지점을 아는 기술이다.

수련은 참과 빚의 리듬이며, 향유의 모든 문화만큼 오래되었다. 주마다 하루를 거름에 바친다. 무엇을 거를지는 저마다 고르되,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련이 아니다. 포도주 없는 날, 고기 없는 날, 단것 없는 날, 소식 없는 날. 속죄로서가 아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어조다. 음악적 의미의 심표로서다. 제1권이 모든 음악의 어머니라 부른 그 고요를 식욕에 적용한 것이다. 심표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한다. 자유를 시험한다. 거름의 날에는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지가 소리 없이 드러난다. 사람이 습관을 가졌는지, 습관이 사람을 가졌는지. 그리고 다 지켜낸 한 주 한 주가 주권 한 조각씩을 돌려준다. 또한 미각을 새롭게 한다. 심 뒤의 첫 잔은 다시 첫 잔이다. 모든 기쁨의 도둑인 익숙함은, 주마다 재산을 몰수당한다.

절제를 한동안 수련한 사람은 그 가장 조용한 효험을 발견한다. 그것은 풍성함을 고귀하게 만든다. 잔치는 화요일과 구별되기에 다시 잔치가 되고, 시가는 습관이 아니기에 다시 사건이 되며, 위대한 빈티지는 제 낙차를 되찾는다. 그러므로 절제는 향유의 적이 아니라 그 지하 저장고의 주인이다. 기쁨들을 상하는 대신 익어 가도록 갈무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권의 모든 수련이 그러하듯, 절제는 제 계기를 넘어 작용한다. 제 식탁에서 족함을 찾은 사람은 소유에서도, 말에서도, 율음을 고집함에서도 그것을 더 쉽게 찾는다. 족함은 말 가운데 가장 짧은 축에 들고, 배우기는 가장 어려운 축에 든다. 그러나 배울 수 있다. 주에 하루, 사랑하는 것 하나, 심 하나. 자유가 시작하는 데에는 그 이상이 필요치 않다.

잠 — 동맹으로서의 밤

제1권은 잠을 지나가듯 하루의 발효라 불렀다. 흥정할 수 없고 재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장은 그 심상에 머문다. 들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술통 안에서처럼, 잠에서 본질적인 일은 보이지 않게, 손대지 않는 사이 일어난다. 하루가 변모되는 것이다. 배운 것은 갈무리되고, 겪은 것은 추려지며, 몸은 고쳐지고, 마음은 맑아진다. 그리고 포도주와 같다. 그 과정을 어지럽히거나 줄이는 사람은 흐리고 덜 된, 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얻는다. 시대는 잠을 약함으로, 쟁취해 되찾을 손실 시간으로 다루며, 제 피로를 훈장처럼 달고 다닌다. 순수한 삶은 그 명예를 뒤집는다. 밤을 동맹으로, 잠을 하나의 수공으로 대하는 것이다. 일어나도록

두는 것으로 해내는 유일한 수공. 그러나 두는 일은 준비되기를 원한다. 준비는 착륙이지 추락이 아니다. 그 도구들을 독자는 이미 안다. 밤을 향해 겨누기만 하면 된다. 빛은 저녁에 내려앉는다. 빛의 장이 그린 대로. 일의 밝음에서 따뜻한 등잔을 거쳐 촛불로. 몸은 어스름을 읽고, 어떤 규율도 강제할 수 없는 일을 저절로 시작한다. 기기들은 문턱 앞에 머문다. 침실은 기기 없는 구역이고, 마지막 삼십 분은 직접 손에 닿는 삶의 뒤편이다. 종이 한 장, 나직한 대화, 하루의 일부러 마지막으로 삼는 감사의 저녁 결산. 시각은 고정된다. 잠은 이 저작의 살아 있는 모든 것처럼 리듬을 사랑하며, 같은 취침 시각이 기술의 절반이다. 방은 밤을 위해 지어진다. 서늘하게, 어둡게, 조용하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세 가지 수면제, 처방전 없이, 부작용 없이. 그리고 포도주의 집에 어울리는 정직 하나. 포도주는 저녁의 피조물이지 밤의 피조물이 아니다. 수면제로 오용되면 밤에게서 깊이를, 아침에게서 맑음을 훔친다. 향유는 수단이 되는 곳에서 끝난다. 그것이 첫 장부터의 정의였다.

밤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밤은 낮을 선사한다. 이는 상투어가 아니라 이 권의 가장 맑은 샘이다. 기초가 놓인 아침, 쪼개지지 않은 한 시간, 식탁에서의 인내, 다툼에서의 온화, 청음실에서의 깨어 있음. 이 저작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해내고 탈진한 사람은 헛되이 시도한다. 잠은 모든 토대 아래의 토대이며, 다른 모든 수련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수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이 가장 아끼는 덕의 나날의 수업이다. 신뢰의 수업. 밤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다. 통제를, 계획을, 근심을. 그리고 이끌 수도 지켜 볼 수도 없는 과정에 자신을 맡긴다. 변모되어 떠오르리라는 믿음으로. 포도 농부가 저장고를 잠글 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정원사가 가을에 씨 뿌릴 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잠드는 것은 이 저작의 단 하나 큰 태도의 밤 판본이다. 살아 있는 것에게 제 일을 하게 하는 것. 자연은 그렇게 뜻했다. 이 일도 그렇다.

시간 — 유일한 재산

제1권은 시간을 지나가듯 인간 삶의 유일하게 대체 불가능한 재산이라 불렀다. 이 장은 그 문장에 멈추어 서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은 글자 그대로 참이면서, 거의 결코 글자 그대로 살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진 다른 모든 것은 대체되거나 불어날 수 있다. 돈도, 물건도, 심지어 기력과 술한 명성도. 시간은 벌 수는 없고 쓸 수만 있는 유일한 화폐다. 하루하루는 해 질 녘이면 무엇에 썼든 남김없이 소멸하는 금액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도 가장 가난한 이도 똑같은 스물네 시간을 받는다. 유일한 차이는 쓰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한 사람에게 관해 존재하는 가장 정확한 증언이다. 네 시간을 보여 다오, 그러면 네 진실을 알리라. 네가 내세우는 가치가 아니라, 네가 살아 낸 가치를.

그러므로 순수한 삶은 시간을, 지하 저장고의 주인이 위대한 빈티지를 다루듯 다룬다. 경외로, 계획으로, 그리고 알맞은 자리에서의 너그러움으로. 경외란 이렇다. 한 시간을 잘게 부수지 마라. 오 분짜리 조각 열둘로 부서진 한 시간은 더는 한 시간이 아니라 열두 번 시작하다 만 부스러기다. 반면 쪼개지지 않은 한 시간은 — 일을 위한, 대화를 위한, 음악을 위한 — 되어 가는 모든 것의 기본 단위이며, 그것을 지키는 일이 시간의 첫 기술이다. 계획이란 이렇다. 제1권이 곳곳에서 원하는 리듬들을 세워라. 기초가 놓인 아침, 정해진 식탁, 불의 시간, 달력 속의 잔치. 리듬이야말로 움켜쥐지 않고 시간을 소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그러움이란 이렇다. 낭비가 지혜인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라. 어떤 돈의 인색보다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는 시간의 인색이 있다. 중동무이된 잔치, 줄여 버린 재회, 끝내 지키지 않은 곧이라는 약속.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의도로 재지 않고 시간으로 잔다. 끝내 이것은 이 저작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매수되지 않는 셈이다. 한 생은 그 나날이 무엇에 쓰였는가의 총합이다. 순수한 삶이란 그 총합을 눈뜬 채 이루어 가겠다는 결심에 다름 아니다.

디지털의 순수함 — 기기의 주인으로 남기

이 저작은 기술의 적이 아니다. 한 기술자가 시작했고, 두 장에 한 번씩 아는 기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기린다. 그러나 이 저작은 날카로운 기준 하나를 세웠다. 임재에 봉사하는 기술은 문명이다. 임재를 대신하는 기술은 전원 달린 소음이다. 오늘날 이 기준이,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언제나 지니고 다니는 그 작은 기기에서만큼 날마다 판가름 나는 물건은 없다. 그것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간 것 중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 지금껏 만들어진 것 중 가장 교묘한 부재로의 초대장이다. 그것은 임재에 반대하는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천 번의 작은 눈길을 요구할 뿐이며, 그 눈길들의 총합이 곧 부재하는 삶이다. 물음은 기기를 쓰느냐가 아니다. 물음은 누가 누구를 쓰고 있느냐다.

그러므로 디지털의 순수함은 금욕이 아니라 위계의 질서다. 이 집이 곳곳에 세우는 바로 그 질서. 도구는 섬기고, 사람은 이끈다. 그 수련은 구체적이다. 고요의 장소들. 식탁과 청음실과 침실은 기기 없는 구역이다. 엄격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전화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그곳에서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요의 시간들. 기초가 놓인 아침은 화면 없이 지켜지고,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삼십 분은 직접 손에 닿는 삶의 뒤편이다. 방울방울 대신 묶어서. 소식과 알림은 고른 시각에, 차분히, 한꺼번에. 매시간을 찢어 대는 상시 수액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모두를 떠받치는 가장 섬세한 수련. 반사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빈틈의 첫 일 초에 기기로 뻗는 그 손 — 신호등 앞에서, 승강기 안에서, 대화의 멈춤에서 — 그것이 하루 백 번 임재를 두고 표결이 벌어지는 순간

이다. 그 손을 그저 알아차리고, 하루 세 번 그것을 행하지 않은 채 빈틈을 견뎌내는 사람은, 표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 작은 빈틈들은 결핍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각이 숨 쉬는 하루의 숨구멍이다. 착상이 사는 틈새이며, 그러지 않았다면 끝내 오가지 못했을 눈길이다. 순수한 삶은 제 숨구멍을 지킨다. 모든 틈을 틀어막기를 그만두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세계가 돌아오는지는, 놀라울 따름이다.

일곱째 날 — 심의 기술

인류의 모든 발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하나가 동시에 가장 잊힌 것이다. 일곱째 날이다. 주말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의 통찰이 있었다. 인간에게는 하루보다 크고 계절보다 작은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리듬 안에서 하루는 나머지와 달라야 한다는 것. 별이 없는, 몰아붙임 없는, 무엇이 무슨 소용이냐는 물음 없는 하루가. 모든 위대한 문화가 이를 알았다. 무어라 이름 붙이고 어떻게 근거 지었든. 시대는 결의도 없이 그것을 폐지했다. 주말은 한 주의 자투리 시간이 되었다. 불일, 약속, 화면.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쉬었으되 자유롭게 못했던 이들의 탈진. 그러나 일곱째 날은 결코 공회전으로 생각된 것이 아니었다. 정상으로 생각된 것이다. 나머지 옛새가 그날을 위해 일하는, 그 하루로.

수련은 그것을 다시 세우는 데 있으며, 단 하나의 어려운 결단만을 요구한다. 한 주의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 옛말의 글자 그대로의 뜻에서, 따로 떼어 놓는 것이다. 그날에는 별이가 쉬고, 불일이 쉬고, 최적화가 쉰다. 기기는 외출하고, 목록은 심표를 얻는다. 그 대신 일어나는 일은 무가 아니라 본질이다. 그날은 볼록렌즈처럼 이 저작이 원하는 모든 것을 모은다. 끝나는 시각 없는 긴 식탁, 큰 산책, 눈 감고 듣는 음악, 저녁의 불, 한 주 동안 시간이 모자랐던 사람들. 그러므로 게으름이 아니라 잔치다. 빈 하루가 아니라 가득 찬 하루 — 다만 옳은 것으로 가득 찬 하루다. 그런데 이날을 지키는 가족들은 서로를 단박에 알아본다. 일요일을 지루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 내려는 아이들의 가족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한 주에게, 심표가 음악에게 주는 것을 준다. 형식이다. 옛새는 그 끝에 저희가 달려갈 하루가 서 있을 때 방향을 얻는다. 일 자체도 크게 쓴 마침을 알 때 더 품위 있어진다. 이날을 한동안 지키는 사람은 그 발명에 깃들여 있던 오랜 진리를 알아차린다. 인간은 휴게 규정 딸린 일 짐승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알기 위해 잔치를 벌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곱째 날은 뜻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달력의 대답이다. 말로써가 아니라 시간으로써. 옛새 동안 씨를 뿌린다. 일곱째 날에는 식탁에 앉아, 한 주 내내 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된다. 꿈, 임재하는 사람이.

제3서 — 더불어 사는 기술

말 — 순수한 언어

포도주와 섬유와 소리의 순수함을 이토록 진지하게 여기는 저작이라면, 마지막에는 인간이 가장 많이 생산하면서 가장 함부로 가공하는 재료의 순수함도 말해야 한다. 말이다. 말은 더불어 사는 삶의 양식이다. 살이 되는 말과 빈말이 있고, 신선한 말과 상한 말이 있으며, 정직한 말과 섞음질한 말이 있다. 그리고 음식과 똑같다. 사람은 날마다 들이고 날마다 내어놓는 그것이 된다. 결혼도, 우정도, 회사도, 가족도 대부분 말해진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품격은, 긴 구간에서 보면, 그저 그 문장들의 품격이다.

순수한 말은 이 저작의 모든 순수한 산물과 같은 표를 지닌다. 정직하게 표시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다섯째 기동인 명료함의, 말로 된 모습이다. 첨가물이 없다. 아무 뜻 없는 상투어가 없고, 더는 아무것도 높이지 못하는 최상급이 없으며, 모든 진지함에서 숨는 빈정거림이 없고, 소리만 낼 뿐 말하지 않는 은어가 없다. 통조림이 아니라 신선하다. 제 말, 제 심상, 바로 이 사람을 위해 바로 이 순간에 지어진 문장. 누구에게나 맞아서 끝내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찍어 낸 관용구가 아니라. 그리고 제 가장 고귀한 갈래를 안다. 과녁을 맞히는 칭찬. 셋째 기동인 인정을 정확하게 말한 것이다. 수련은 날마다이며 마르지 않는다. 하루 한 번, 어려운 말을 일찍, 다정하게 하라. 발효하게 두는 대신에. 하루 한 번, 받은 이가 결코 잊지 못할 만큼 정확한 칭찬을 하라. 그리고 하루 한 번, 값싼 말이 손에 잡히는 자리에서 침묵하라.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하여, 남의 잘못에 관하여, 소음밖에 되지 못했을 것에 관하여. 이 또한 순수한 말에 속하며, 그 기술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말해지지 않은 것 말이다. 험담은 말의 패스트푸드다. 손쉽고, 자극적이며, 오래 두면 독이 된다. 나쁜 기쁨을 부엌에서 몰아내듯 험담을 집에서 몰아내는 사람은, 참된 것을 위해 얼마나 넓은 자리가 비는지에 놀랄 것이다.

예의 — 작은 형식들

제1권의 큰 덕들 — 인정, 충실, 명료 — 사이에는, 그 모두를 위해 문을 잡아 주는 작은 덕 하나가 산다. 예의다. 시대는 예의에 거짓의 혐의를 씌운다. 진정성은 형식을 걷어 내는 데서 드러난다고 믿는 것이다. 값비싼 오류다. 예의는 꾸밈이 아니라 굳어진 존중이다. 하도 자주 익혀서 형식이 된 존중, 그리하여 감정이 막히는 날에도 애쓰지 않고 꺼내 쓸 수 있게 된 존중이다. 인사, 감사, 잡아 준 문, 기억해 준 이름, 말을 끝맺게 해 줌.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같은 문장을 말한다. 당신

은 내게 이 형식을 들일 만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문장들을 지워 버리는 사회는 더 정직해지지 않는다. 다만 더 차가워지고, 그것을 격의 없음이라 부를 뿐이다.

수련은 세 가지 형식을 골라, 다시 천성이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가꾸는 것이다. 오래된 결작들이 고르라고 놓여 있다. 눈길을 담은 인사. 지나치며 웅얼거리는 한마디가 아니라, 상투어를 만남으로 바꾸는 반초의 눈맞춤. 빵집에서, 승강기에서, 제 식탁에서. 이름.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 — 종업원을, 이웃을, 새 동료를 — 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서훈이며 결코 잊히지 않는다. 시간 지키기. 그것은 시간의 예의다. 기다리게 되는 사람은 살아갈 시간을 빼앗기며,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말없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시간은 내 시간만큼 무겁다고. 이 권의 시간 장은 한 시간을 공경했다. 시간 지키기는 그 공경을 남에게 바치는 일이다. 그리고 셋 위에, 까닭을 붙인 감사.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디를 더하면, 동전이 선물이 된다.

작은 형식들을 지키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겪을 것이다. 먼저 바깥을 향한 효험. 예의 바른 사람 돌레에서 공간이 바뀐다. 종업원은 상냥해지고, 협상은 부드러워지며, 낯선 이는 기꺼워진다. 예의는 그 반대만큼이나 얹는다. 다만 더 이로울 뿐이다. 다음으로, 더 섬세하게, 안을 향한 효험. 형식이 감정을 나른다. 그 반대가 아니다. 인사하는 사람은 다정하게 조율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하게 된다. 몸짓이 앞서가고 마음이 뒤따른다. 제1권이 사물을 초대라 선언한 그 심리학을, 몸가짐에 돌려놓은 것이다. 예의란 사람이 스스로 그것인 초대다. 그리고 — 온갖 거드름에 맞서 말해 두거니와 — 이 저작의 가장 민주적인 사치다. 아무 값도 들지 않고, 누구의 손에나 닿으며, 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미덥게 사람을 꾸며 주니.

편지 — 느린 언어

글로 쓰인 말이 지금껏 입에 온 모든 형식 가운데, 순수한 삶과 다른 무엇보다 살가운 것이 하나 있다. 편지다. 몇 초에 쳐서 몇 초에 잇는 메시지가 아니다. 종이 위에, 손으로, 낱자와 부름말을 갖추고, 우체통까지의 걸음이 딸린 진짜 편지다. 시대는 그것을 끝난 것으로 친다. 바로 그 점이 편지를 귀하게 만든다. 편지는 오늘,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럴 필요가 없던 것이 되었다. 하나의 결단이 된 것이다. 받는 이는 생각할 것도 없이 제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안다. 다른 삶의 반 시간. 오직 저 한 사람에게 바쳐진, 나눌 수 없고 베낄 수 없는 반 시간. 메시지는 지워진다. 편지는 간직된다. 서랍에, 상자에, 수십 년을 건너. 그리고 일이 무거운 날에 다시 읽힌다. 느린 언어만이, 남는 언어다.

수련은 박자에서는 겸손하고 효험에서는 크다. 달마다 한 통,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이에게. 갈래는 오래고 검증되었다. 정확한 칭찬 하나를 담은 감사 편지. 그 시절의 스승에게, 잔치 뒤의 벗에게, 만든 것이 여태 든든한 장인에게. 제1권의 인정장을 가장 오래가는 형태로 옮긴 것이다. 추억의 편지 — 기억하니? — 한 사람에게 함께 지낸 한 장(章)을 되돌려 주며 이렇게 말하는 편지.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간직하고 있어. 긴 침묵 뒤의 다리 편지. 해명을 요구하지도 내놓지도 않고, 그저 문장을 경첩에 도로 다는 편지. 그리고 고등 과정. 살아 있을 때의 편지. 그러지 않으면 장례식에서나 하게 될 말을 미리 하는 편지다. 아버지에게, 벗에게, 길동무에게. 이 문장들을 미를 까닭은 없고, 미루는 데에는 아주 큰 위험이 있다.

이 수련을 지키는 사람은 한 해 뒤, 제 마음에 관한 열두 편의 반 시간짜리 기록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열두 번 겪는다. 목이 멘 전화, 간직된 종이, 그 자체가 다시 편지인 답장. 편지는 편지를 낳기 때문이다. 느린 언어는 느린 언어를 부르고, 두 사람 사이에 역사의 위대한 서한집들 아래로 늘 그러했던 것이 생겨난다. 도움닫기가 있기에 물속 깊이 잠기는 대화가. 끝으로 편지가 이 저작에 속하는 까닭은, 그 온 가르침을 봉투 하나에 담아 나르기 때문이다. 아껴지는 대신 선물된 시간. 잉크로 굳은 주의 깊음. 손의 수공. 그리고 보낸 이가 언젠가 더는 쓰지 않게 되어도 남아 있는 물건. 채팅 기록은 물려받지 않는다. 편지는, 물려받는다.

선물하는 기술

제1권의 환대는 열린 문이었다. 선물하기는 그 길 떠난 형제다. 집을 나서서, 상대가 사는 그곳에서 상대를 찾아내는 증여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기술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쇠락한 기술 가운데 하나다. 현대 세계는 선물을 조달로 바꾸어 놓았다. 금액으로, 상품권으로, 달력 속 의무로. 뜻 없는 값어치. 이렇게 건네는 것은 사실 건넨 것이 아니리라는 말없는 합의 속에 오가는 것. 순수한 삶은 그 관계를 뒤집는다. 참된 선물에서 값어치는 가장 하찮은 것이고 뜻이 전부다. 선물이란 굳어진 주의 깊음이다. 네가 너에 대해 말할 때 누군가 듣고 있었고, 네가 없을 때 그것을 기억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 집의 큰 선물은 비싼 것이기보다 정확한 것이다. 벗이 혼인하던 그 해의 그 병. 아직 따듯할 때 건네는, 제 화덕의 빵. 둘 다 잊지 못한 그 저녁에 함께 들었던 그 녹음. 상대가 세 번이나 이제는 하나 장만해야지 하고도 끝내 하지 않은 그 연장. 시간 그 자체. 내어 준 오후, 지어 준 밤, 스스로 떠맡은 길. 이 선물 하나하나가 같은 문장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문장이다. 나는 너를 보았다. 그러므로 선물하기의 수련은 계기가 오기 한참 전에 시작된다. 모으는 데 있는 것이다. 소물리에가 시음하듯 제 둘레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이는, 어느 잔치든 선물을 진작에 찾아 두었다. 그리고 이 수련은 똑같이 드물어진 받는 기술에서 완성된다. 선물을 천천히 풀고, 그 안의 주의 깊음을 알아보고, 이름 지어 말하는 것. 선물은 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1권이라면 이렇게 말하리라. 나누어 마시는 병처럼. 선물과 감사는 따르기와 건배다. 그리고 둘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원은, 저 풍요로움을 알기 위해 달력이 필요 없다.

용서 — 정화

이 저작은 순수한 술을, 순수한 물을, 순수한 말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에도 걸리지 않고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에 걸리는 정화도 이야기해야 한다. 용서다. 관계도 흐려지기 때문이다. 앙금은 관계의 침전물이다. 답을 얻지 못한 상처, 해묵은 다툼, 말없이 계속 적어 가는 셈. 그리고 모든 흐름이 그렇듯 천천히 작용한다. 말문을 막고, 식탁을 식히며, 충실을 의무로, 가까움을 타성으로 바꾼다. 제1권의 명료함은 예방이다. 일찍, 다정하게 말해진 것은 용서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삶도 예방이 늦어 버린 경우를 피해 가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약이 하나뿐이며, 그것은 인간의 장비 가운데 가장 심하게 오해된 것이다.

그러니 먼저, 용서가 아닌 것부터. 용서는 승인이 아니다. 행위는 있었던 그대로 남고, 그에 대한 판단도 그렇다. 망각이 아니다. 기억은 명령을 받지 않으며, 받아서도 안 된다. 충실은 기억을 지닌 사랑이라고 제1권은 말했고, 그 말은 기억의 흉터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되돌려 놓는 복원도 아니다. 용서하면서도, 거리가 지혜인 곳에서는 거리를 지킬 수 있다. 용서란 더 맑고 더 큰 무엇이다. 셈을 닫겠다는 결단이다. 셈이 청산되어서가 아니라, 계속 적어 가는 일이 채권자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앙금은 그 이자를 피해자가 무는, 세상 유일의 빛이다. 수련에는 두 단계가 있다. 작은 용서, 날마다의 것. 끼어든 차, 날 선 말투, 잊힌 약속. 그 자리에서, 마음속 한 획으로, 원칙으로서 탕감할 것. 작은 항목들을 모으는 사람은 연말에 독으로 가득한 장부를 갖는다. 그리고 큰 용서, 드물고 어려운 것. 감정으로 기다리지 말고 결단으로 시작할 것. 감정은 수확이고 결단은 파종이며, 그 사이에는 이 저작의 모든 포도밭에서처럼 시간이 놓여 있다.

두 가지 덧붙임이 수련을 온전하게 한다. 첫째. 용서를 청할 줄 아는 것. 제 허물을 이름 지어 말하는 것. 하지만 없이, 네가 먼저였잖아 없이. 그것은 명료함의 가장 어려운 형태이며, 존재하는 가장 빠른 정화다. 둘째, 가장 조용한 것.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 시절의 그릇된 결정, 놓쳐 버린 세월, 되부를 수 없는 그 말. 적잖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제 삶에서 가장 긴 셈을 적고 있으며, 이 권의 어떤 수련도 묶인 손으로는 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저장고의 법이 통한다. 달아라, 쏟아 버리지는 마라.

교훈은 남기고, 짐은 남기지 마라. 용서해 본 사람은 — 남을, 그리고 자신을 — 그 뒤의 느낌을 안다. 그리고 그것은 몸의 느낌이다. 대청소를 끝내고 창이 활짝 열려 있을 때의 느낌이다. 관계가 다시 맑다. 다음에 함께 드는 잔의 맛에서, 그것이 느껴진다.

감사 — 저녁의 결산

인정 — 셋째 기둥 — 이 남의 이름을 보는 눈길이라면, 감사는 같은 눈길을 제 삶으로 돌린 것이다.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알아보는 능력. 당연한 것으로 장부에 올리는 대신에. 그것은 이 저작의 덕 가운데 가장 조용한 것이며, 아마 그 대들보일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김빠지기 때문이다. 감사 없는 향유는 무더진다. 그것이 익숙함의 철칙이며, 어떤 호사든 몇 달 안에 벽지로 만들어 버린다. 가장 풍성한 식탁도, 가장 참된 음향상도, 가장 충실한 손도. 확실해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은 보이지 않게 된다. 감사는 이 눈땀에 알려진 유일한 약이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제 삶을 몇 번이고 처음처럼 보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것은 수련할 수 있다. 그것이 그 기쁜 소식이다. 수련의 이름은 저녁의 결산이며, 비용은 삼 분이다. 하루의 끝에, 마지막 촛불 곁에서나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이날의 세 가지를 말하는 것. 뭉뚱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 선물이었던 세 가지를. 가족이 아니라, 식탁에서 모두를 웃게 한 아이의 그 한마디. 건강이 아니라, 차가운 아침을 가르던 그 가벼운 걸음. 포도주가 아니라, 저녁이 그것을 위해 마련되었던 굵이로 대화가 접어들던 석 잔째의 그 일 분. 정확함이 비결의 전부다. 그것은 눈길로 하여금 하루를 다시 한 번 걷게 하고, 첫 번에 놓친 것을 찾게 하며 — 그로써 내일을 위해 눈을 단련시킨다. 이 결산을 몇 달 이어 간 사람은 옮겨 감을 알아차린다. 낮 동안에 이미 모으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것 한복판에서 낮은 목소리가 알린다. 이건 오늘 밤 것 하나다. 그 순간 감사는 결산표에서 감각 기관으로 바뀐 것이다. 그것은 제1권이 연 학교의 마지막 학년이다. 먼저 혀가 맛보기를 배우고, 다음에 귀가 듣기를, 다음에 눈이 보기를 배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헤아리기를 배운다. 저녁에 참된 선물 셋을 찾아내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산다. 그 삶이 남들보다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4서 — 자라나는 것

정원 — 문 앞의 스승

제1권은 페이지마다 자연을 스승으로 기렸다. 포도밭에서, 초지에서, 올리브 숲에서. 그런데 누구나 이 스승을 몸소 모실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다. 크게든, 아주 작게든. 정원이다. 장원일 필요는 없다. 두둑 하나면 족하다. 발코니의 화분 상자, 부엌 창가의 허브 세 화분. 배움은 같다. 넓이가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사람이, 제 달력이 아니라 자연의 달력을 따라 자라는 산 것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다. 그리하여 정원은 순수한 삶의 가장 완전한 수련 기구다. 다섯 기둥이 한 뿔기 땅 위에 선다. 결속. 흙에 손을 넣어 보면 바탕이라는 말의 뜻을 깨닫는다. 성장. 몇 달 뒤에야 고마움을 갚을 것을 심으며, 손가락으로 긴 생각을 배운다. 인정. 알지도 못한 채 그 수고를 먹어 온 농부가 무엇을 해내는지 처음으로 참되게 본다. 충실. 정원은 소홀한 여름 한 철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이지 재산이 아니다. 그리고 명료. 어디에서도 이보다 정직하게 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흙은 아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원은 가르치는 것을 갑절로 돌려준다. 운송을 모르는 유일한 먹거리를 준다. 줄기와 접시 사이 삼십 초를 여행하는 토마토, 요리하는 손 안에서야 뜯기는 바질. 제1권이 그린 그 저울의 영점, 다른 모든 맛이 그것에 재어져야 하는 맛이다. 가장 미더운 겸손을 준다. 가꾸는 사람은 해마다 무엇인가 실패한다. 날씨에, 달팽이에, 제 조급함에. 그리하여 더 힘센 것과 더불어 일하는 이의 태연함을 배운다. 그리고 가장 깊게는, 이 집 전체가 그 위에 서 있는 단 하나의 진리를 날마다 바라보게 한다. 완전한 것은 자라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섬길 수는 있어도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인내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 손톱 밑에 흙이 낀 사람은 이 저작을 더는 읽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As pure as nature intended*. 정원에서 그것은 상표의 약속이 아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나가는, 아침이다.

나무 — 모레를 위해 심기

이 권의 정원이 계절의 학교였다면, 나무는 수십 년의 학교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은 인간이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긴 의지의 선언이다. 호두나무는 손주를 위해 열매 맺고, 참나무는 이름조차 아무도 모를 사람들을 위해 그늘 드리운다. 심는 사람은 심는 그 순간에 이를 알면서도 심는다. 그리고 바로 이 그런데도가 수련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 전통이 이를 알아 나무

를 제 문장(紋章)으로 삼았다. 마지막 날에도 어린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옛말은 버티기의 구호가 아니라, 제1권이 긴 생각이라 부른 것의 가장 촘촘한 요약이다. 저를 넘어서는 것을 위해 일함. 흙에 적힌, 진지함의 정의다.

이 수련은 글자 그대로 행할 일이며, 저마다의 때가 있다. 삶의 굽이마다 나무 한 그루가 어울린다. 아이를 위한 탄생의 나무. 아이와 함께 자라고, 훗날 아이가 제 아이들에게 보여 줄 나무. 혼인의 나무. 언약에 뿌리내리는 형태를 주는 나무. 잃은 사람을 위한 나무. 기림의 가장 오래고 가장 아물게 하는 형태다. 슬픔을 물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아픔에 방향을 주기 때문이다. 위라는 방향을. 제 땅이 없는 곳에도 길은 있다. 마을의 과수 초지, 조림지의 한 구획, 후원하는 나무. 결정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행함이다. 그리고 땅 가진 이는 되도록 오래된 것과 열매 맺는 것을 심으라. 산업이 골라 버린 품종들, 호두나무, 밤나무, 집 앞의 보리수. 그 아래 사람이 앉게 될 나무들을. 그것이 수련의 나머지 반이며, 제1권은 역경의 장에서 이를 앞서 말했다. 오래된 나무 아래 앉기. 심는 사람은, 훗날 다른 이들이 위로를 꺼내 갈 공간에 붓고 있는 것이다. 한나절 오후에 이보다 나은 쓰임은 없다.

나무는 다른 어떤 산 것도 이토록 참을성 있게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을 가르친다. 뿌리내린 자의 태연함이다. 폭풍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좋은 해에 깊이 바탕을 놓았고, 나쁜 해에는 그것으로 산다. 이 움김은 풀이가 필요 없다. 나무는 보이지 않게 자란다. 어느 하루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어느 십 년이나 변모를 보인다. 조급함에 맞선 살아 있는 반증이며, 부엌 창에서 보인다. 그리고 심은 이보다 오래 산다.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바로 뜻이다. 나무를 심어 온 사람은 미래에 증인을 둔다. 제 목소리가 잦아든 지 오래인 뒤에도, 제 결심이 여전히 그늘을 드리우는 자리들을. 물려주기와 놓아주기의 장이, 숨씨와 물건을 어떻게 남의 손에 놓는지 말해 줄 것이다. 나무는 그 가장 소박한 예비 학교다. 생명을 땅에 놓고, 손을 놓는다. 그러면 그것은 나 자신이었던 것보다 더 크게 자란다.

여행 — 길 위에서도 순수하게

순수한 삶은 식탁과 집과 원에 매여 있다. 바로 그래서 셋이 모두 없는 날들을 위한 장이 필요하다. 사람은 길을 떠나기 마련이고, 여행은 모든 삶의 형식의 불 시험이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둘레가 사람을 떠받친다. 길 위에서 떠받쳐 주는 것은 몸에 익힌 것뿐이다. 게다가 현대의 여행은 이 저작이 맞서 쓰인 그 가속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장소를 지워 나가는 체크리스트, 장소 대신 장소의 그림을 쫓는 사냥, 떠날 때보다 지쳐서 돌아오는 귀로. 순수한 여행은 방향을 돌린다. 그 잣대는 얼마나 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느꼈느냐다. 장소의 수가 아니라, 한 장소의 깊이다.

그 수련은 서두름 이전에 통하던 나그네의 옛 기술이다. 장소는 적게, 장소는 깊게. 한 골짜기에서의 일주일이 사흘 동안의 세 나라보다 무겁다. 나흘째가 되어야 장소는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그전에는 제 그림엽서만 보여 줄 뿐이다. 식탁으로 입국하기. 아침의 장터, 그 고장의 빵, 지금 딛고 선 비탈의 포도주, 여기에만 있는 그 음식. 출신은 맛볼 수 있다고 제1권은 가르쳤다. 여행은 샘에서 맛보는 기회다. 장인을 찾아가기. 정직한 고장마다, 조상들이 하던 대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산다. 치즈 만드는 이, 베 짜는 이, 배 짓는 이, 술 빚는 이. 그들의 일터에서 보낸 한 시간이 어느 박물관보다 더 그 나라다. 그리고 제2의 피부는 길 위에서 글자 그대로 증명된다. 어떤 기후든 견디고 두 주간의 가방살이 뒤에도 여독의 냄새가 배지 않는, 몇 안 되는 참된 옷가지. 순수한 나그네의 짐이 가벼운 것은 그 물건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여행은 이 저작의 모든 것과 같은 목적에 봉사한다. 다만 낯섦이라는 에움길로. 여행은 제 것을 향한 감각을 버린다. 낯선 부엌의 고장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집에서 제 고장을 다시 맛본다. 낯선 골짜기에서 느낌을 찾은 사람은 돌아와서, 그것이 집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알아본다. 가장 순수한 경우, 사람은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제 삶의 둘레를 한 바퀴 돌아, 처음으로 바깥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다. 가장 좋은 여행은 귀향에서 드러난다. 홀가분해서가 아니라 더 풍요로워져서 닿는다.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 식탁을 차린다.

수집 — 안목의 기술

제1권은 소유를 살피 갖가지 변장을 골라냈다. 이 장은 소유가 입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로 향한다. 수집이다. 쌓기와 모으기 사이에는 한 세계가 놓여 있고, 그것은 금세 이름 붙는다. 무더기는 계기로 자라고, 수집은 판단으로 자란다. 참된 수집은 — 포도주든, 시계든, 녹음이든, 옛 카메라든, 책이든 무엇이든 — 물건의 꼴을 한 인정이다. 하나하나가 보아지고, 살펴지고, 이해되고, 값하다고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 줄지어 선 것들은 한꺼번에 두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분야의 이야기와, 수집가의 이야기를. 자라 가는 그의 눈은 나이트처럼 그의 고름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수집은 바르게 하면 하나의 학교다. 포도주가 혀를 기르듯 안목을 기른다. 시대를, 필치를, 위작을, 미묘함을 배운다. 제1권이 인격의 감각 기관이라 부른 그 판단력을, 스스로 고른 제목 위에서 얻는 것이다.

수련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고, 그것이 안목가와 쌓는 이를 가르친다. 첫째. 수집은 하나, 무더기 일곱이 아니라. 수집의 힘은 흠어짐이 아니라 깊이에 있다. 식욕만 있는 다섯 분야보다 안목 있는 한 분야가 낫다. 제한은 여기서도 이 저작 어디서나처럼 가난이 아니라 통달의 조건이다. 둘째. 수집은 적어 가며 하는 것이 그저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에 제 이야기가 있고, 그것은 기록될 자격이 있다. 내력을, 계기를, 남다름을. 대장 없는 수집은 말 잃은 기억이며, 훗날

물려받을 이에게 대장은 값어치의 절반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수집은 나누는 것이다. 포도주는 마신다. 맞는 사람들과, 맞는 자리에서. 녹음은 툰다. 카메라는 찍는다. 책은 빌려준다. 지키기만 하는 수집은 목록 달린 무덤이다. 살아 있는 수집은 환대의 악기다. 하나하나가 제 때를 기다리는 저녁인 것이다.

그리고 넷째 규칙이 셋을 지킨다. 수집에는 그늘이 있고, 모으는 사람은 그것을 안다. 수집이 수집가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찾기가 찾는 것보다 중요해지고, 갖기가 쓰기보다 중요해지며, 선반의 빈칸이 그 위에 선 모든 것보다 시끄러워질 때. 제1권의 시금석은 여기서 더 날카롭게 통한다. 의자에 느슨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다스리는 수련은 이따금의 내어 줌이다. 수집의 한 점을, 그것이 속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해의 병은 그해에 태어난 이에게. 카메라는 사진을 시작한 아이에게. 그것은 수집의 건강 검진이자 동시에 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내어 줄 수 있는 수집이라야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와 함께 건네지는, 이야기를 지닌 한 점은, 이 저작이 아는 가장 온전한 선물이다. 물건으로 익은, 주의 깊음이다.

기억 — 삶의 기록고

이 시대는 그 이전 모든 세기를 합친 것보다 많이 찍는다. 그리고 더 못 기억한다. 모순이 아니라 귀결이다. 아무도 다시 보지 않는 만 장의 사진은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 저 밑에 저를 파묻는 일이다. 기억하기는 이 저작의 값진 모든 것처럼 양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문제다. 사진이 아직 귀하던 시절 집집이 익히고 있던, 연장과 의식이 딸린 수공이다. 앨범, 뒷면에 적어 둔 글, 영사기 결의 저녁, 잔치 때마다 조금씩 둥글어지던 이야깃거리. 이 수공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움에서가 아니라, 제1권이 세대의 식탁에 얹어 둔 까닭에서다. 가족도, 원도, 삶도 제 역사를 손 닿는 데 두어야 한다. 지난날은 창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의 한 방이며, 들어갈 수 있으려면 꾸며 두어야 한다.

수련에는 세 가지 연장이 있다. 첫째는 한 해의 책이다. 해마다 한 번, 조용한 한 주에, 수천 장 가운데서 단 한 권을 만든다. 백 장, 그 이상은 말고. 인쇄하고 제본하여, 곳과 이름을 적고, 한마디가 필요한 곳에 한마디를. 고르기가 참된 일이고 참된 얻음이다. 감사의 저녁 결산처럼, 다만 큰 자로, 제 한 해를 다시 걷는다. 남는 것은 한 해의 기록이 아니라 그 종류다. 그런 책 스무 권은 훗날 집안의 보물이 된다. 세상 어느 하드디스크도 그렇게 넘겨지지 않는으리라. 둘째 연장은 적어 둔 이야기다. 어느 가족, 어느 우정이나 들려주는 이야기들의 정전(正典)으로 산다. 그리고 아무도 적어 두지 않으면 이야기꾼과 함께 죽는다. 공책 한 권이면 된다. 달에 한 편, 식탁에

서 하듯 그대로. 셋째. 글을 붙인 물건들. 할아버지의 시계, 혼인하던 해의 병,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짠 기계. 세 문장 적은 쪽지 하나가 물건을 가보로 바꾼다. 그것이 없으면 한 세대 뒤에 팔려 나간다.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기록고를 가꾸는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이 더 깊은 일을 하고 있다. 해(年)의 자로 감사의 눈을 단련하는 것이다. 고르는 사람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대의 식탁에 그 서고를 지어 주는 것이다. 앨범과 공책이야말로, 훗날 세상 떠난 이들을 가장 순한 방식으로 방 안에 모셔 오는 것이다. 할머니의 요리법을 두고 제1권이 말했듯이. 그리고 지나가며, 시간에 관한 마지막 수업 하나를 배운다. 기억된 삶은 살아 낸 삶보다 길다. 그저 지나가 버린 해들은 돌아보면 날씨로 쪼그라든다. 건져 올린 해들은 — 골라지고, 적히고, 이야기된 해들은 — 언제까지나 걸어 들어갈 수 있다. 기억하기란 제 삶에 길이를 주는 기술이다. 움켜쥔으로써가 아니라 박아 넣음으로써. 이 또한 이 집의 엄밀한 뜻에서 저장고의 일이다. 좋은 해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뉘어 두는 것이다.

물려주기 — 스승과 제자에 관하여

제1권은 집안의 유산을 이야기했다. 감각을 타고 계속 여행하는 요리법과 병과 의식들을. 이 장은 그 생각을 핏줄 너머로 넓힌다. 순수한 삶은 두 번째 계승을 안다. 통달의 계승이다. 이 저작이 기리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건네졌다. 이 집의 어떤 수공도, 그것을 날라 온 손의 사슬 없이는 서 있지 못한다. 술통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될 때까지 노장 곁에 섰던 저장고 주인. 보이지 않는 바느질을, 그것을 또 다른 이에게서 배운 이에게서 배운 재봉사. 창립자가 회로만이 아니라 진지함을 보여 준 젊은 기술자. 지식은 인쇄할 수 있다. 솜씨는 사람과 사람 사이로만 여행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보여 주고, 지켜보고, 바로잡으면서. 그리고 그런 시간이 더는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죽는다. 모든 세대는, 세상의 온 솜씨가 그 위로 옮겨져야 하는 좁은 다리다. 그것을 짊어 둘 공간은 없다. 오직 우리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물려주기는 인생 저녁의 일이 아니라 인생 한낮의 자세다. 그리고 서로를 조건 짓는 두 방향이 있다. 하나. 제자를 두어라. 격식 없이, 자격증 없이. 예로부터 그랬듯이.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때 누군가를 곁에 세워 두어라. 일터의 젊은 동료들, 부뚜막 곁의 아이들, 들을 귀를 열어 주는 청음실의 벼들. 제가 할 줄 아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그것을 두 번째로, 더 깊이 이해한다. 제자는 언제나 스승의 솜돌이기도 하다. 다른 방향. 제자로 남아라. 솜씨의 가장 치명적인 문장은 그건 내가 이미 알지다. 그것은 성장을, 둘째 기둥을, 바로 열매 맺기 시작할 그 지점에서 끝장낸다. 이 집의 어른들, 그 참된 저장고 주인들은 이렇

게 알아본다. 일흔에도 여전히 묻고, 맛보고, 경탄하고, 바로잡히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더 젊은 이에게 — 젊은 이가 옳을 때에는. 저마다 무엇에선 스승이고 무엇에선 제자인 원은, 인간 공동체의 완전한 열개를 찾아낸 것이다. 모두가 떠받치고, 모두가 떠받쳐진다. 그리고 제 솜씨가 남의 손에서 살아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겪어 본 사람은 — 제자가 빵을 굽고, 비탈을 읽고, 술기를 얹는 것을, 어쩌면 저보다 낫게 — 소유가 결코 베풀지 않는 기쁨을 안다. 그것은 포도밭의 기쁨이다. 심었더니, 나 없이도 자라 간다. 일하는 한평생을 두고 이보다 큰 말은 없다.

아름다움 — 영혼의 일용할 양식

이 권의 끝에, 다른 모두를 말없이 따라온 수련이 서 있고, 이제 이름 불릴 차례다.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제1권 어디에나 있었다. 차려진 식탁과 자라난 나무에, 촛불과 소리에, 칭찬 한마디의 짜임새와 술 따르는 손짓에. 그런데 시대는 그것에 건어 내야 할 혐의를 걸어 두었다. 아름다움이 장식이고 겉면이며 필요한 것 중 가장 없어도 되는 것인 양. 진실은 정반대이고, 옛 문화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아름다움은 양식이다. 몇 주째 아름다운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은, 의학이 이름을 갖지 못한 자리에서 굶주린다. 무뎌지고, 성마르고, 작아진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의 아름다움을 들이는 사람은 같은 이름 없는 방식으로 배부르다. 더 태연하고, 더 너그럽고, 더 넓게. 아름다움은 끝마친 삶에 주는 상이 아니다. 연료다.

수련에는 두 반쪽이 있다. 받는 반쪽과 주는 반쪽. 받는 반쪽. 날마다 아름다움 하나를 통째로 받으라. 지나치듯이 말고, 아름다움이 요구하는 멈춤과 더 붙어. 빛이 기울 때 창가의 그 이 분. 눈 감고, 꿇지 않고 듣는 한 곡. 좋은 의자처럼 지어져 있어 두 번 읽는 산문 한 쪽. 안다고 여기는 얼굴을 들여다보는 눈길. 포도주와 고요에서와 같은 규율이다. 아름다움은 머무는 이에게만 열린다. 그러나 주는 반쪽이 더 익은 쪽이며, 이 권의 참된 마룻돌이다. 날마다 아름다움 하나를 몸소 마련하는 것. 클 필요 없다. 제 식구 말고는 아무도 손님이 아닌 식탁 위의 꽃 한 송이. 봉지로도 되었을 것을 굳이 골라 쓰는 그릇 하나. 필요한 것보다 아름답게 말하는 한 문장. 그저 지나쳤을 뿐인 자리에 남겨 두는 가지런함.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가르침의 마지막 걸음을 뎌 것이다. 누리는 이에서 주는 이로, 세상의 손님에서 세상의 주인 노릇 하는 이로. 아름다움을 마련한다는 것은 세상의 한 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성이 들었다, 사람은 그럴 만한 존재이므로. 그것이 손짓 하나에 담긴 철학의 전부다. 길로서의 순수함, 목표로서의 사랑, 그리고 그 사이, 날마다 새로운, 아름답게 해낸 작은 일. 그 이상을 뜻한 적은 없다. 그리고 그 이하로는, 모자란다.

제5서 — 높은 수련

앞선 책들은 손의 동작을 수련했다. 오늘, 손과 달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마지막 책은 마음가짐을 수련한다. 경탄, 평정, 놓아주기. 그것들은 산책처럼 처방할 수 없고 편지처럼 날을 잡을 수 없다. 손의 동작에서 자라난다. 인격이 수련에서 자라나듯이. 제1권은 이 법칙을 가르쳤고, 높은 수련은 그 가장 무르익은 적용이다. 고요의 십오 분을 지키는 사람은 진작부터 평정을 수련하고 있다. 저녁의 결산을 이어 가는 사람은 진작부터 경탄을 수련하고 있다. 용서하고 물려주는 사람은 진작부터 놓아주기를 수련하고 있다. 여기서 셋은 다만 제 이름과 제 자리를 — 그리고 마지막 버림을 받을 뿐이다.

경탄 — 깨어 있는 시작

제1권의 첫머리에는 아이들이 서 있었다. 삶이 아직 조심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아낌없이 저를 건네는 사람들. 이 높은 수련의 책은, 아이들이 그밖에 할 줄 알고 어른들은 잊어 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경탄이다. 아이는 풍덩이를, 기중기를, 뇌우 낀 하늘을 보고, 세상의 순전한 있을 법하지 않음에 온전히 임재한다. 어른은 같은 것을 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세상이 심드렁해져서가 아니라, 이 저작 모든 장의 오랜 맞수인 익숙함이 지각 그 자체 위에서 제 가장 철저한 일을 해내기 때문이다. 익숙함은 놀라운 것에 안다는 딱지를 씌워 서류철에 넣어 버린다. 경탄이란 그 딱지를 도로 떼어 내는 능력이다. 그것은 순진함이 아니다. 오히려 정확함의 가장 높은 형태다. 되풀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눈길이다.

수련은 날마다 하는 탈-당연이다. 하루에 당연한 것 하나를 붙들어 세우고 참으로 바라보는 것. 물 한 잔. 이 한 모금이 차고 맑기 위해 수십 년 산속을 지나왔다. 제 귀. 기압의 흔들림으로 바이올린을 빚어내고 목소리를 알아듣는 기관, 이 집의 어느 기기보다 정밀하다. 땀 한 덩이. 아침 식탁 위의 인류 만 년 역사. 정원의 씨앗 한 알. 어떤 공학의 위업도 겸손해지는 설계도를 품고 있다. 더 아는 것이 돕는다. 얇은 경탄의 적이 아니라 그 돋보기다. 술 빛는 이는 문외한보다 발효에 더 깊이 경탄하고, 기술자는 귀에 더 깊이 경탄한다. 무엇을 정확히 알수록 그것은 더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리고 아이를 두는 것도, 빌리는 것도 돕는다. 손잡은 아이 하나는 근무 중인 경탄의 스승이다. 그 물음을 잘라 내는 대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경탄은 감사의 앞 계단이자 그 연료다. 당연치 않다고 알아본 것만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권의 저녁 결산은 낮 동안 경탄했던 눈으로 산다. 그리고 더 깊게, 그것은 이 집의 삶의 감각의 뿌리다. as pure as nature intended는 무엇보다

먼저 경탄의 문장이다. 우리 중 누구도 발명하지 않았고 우리가 발명하는 모든 것보다 완전한 해답들 앞에서 드리는 절이다.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에게 끝난 일이란 없고, 다 길어 내지 못한 일만 있다. 그것이 이 높은 수련의 책에 바탕을 놓는 깨어 있는 시작이다. 세상이 심드렁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쳤을 뿐이다. 경탄은 깨어남이다. 날마다 얻을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씩.

평정 — 영혼의 내후성

제1권은 역경의 장에서, 삶이 궂은 날씨로 접어들 때 무엇이 떠받치는지 보여 주었다. 의식이, 원이, 자연이. 이 장은 날씨보다 먼저 와 있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수련한다. 평정이다. 이 말은 풀이가 필요하다. 가짜 쌍둥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심함이다. 무심한 이는 덜 느낀다. 평정한 이는 모두 느끼되 휩쓸리지 않는다. 평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흡수(吃水)다. 바닥짐을 실은 배는 가벼운 배와 같은 파도를 타고도 뒤집히지 않는다. 이 집의 포도밭은 이 마음가짐을 직업으로 안다. 술 빛는 이는 우박과 서리와 눈부신 해들을 살아 내며, 수십 년에 걸쳐 평정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배운다. 전체에 대한 판결을 어느 한 날씨에 내맡기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해마다 작황이 다르지, 하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일을 계속한다.

수련에는 세 가지 손잡이가 있다. 모두 수수하고, 모두 잘 듣는다. 첫째는 오 년의 물음이다.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 분노, 모욕, 좌절 — 단 하나의 물음을 던지는 것. 이 일이 오 년 뒤에도 섬에 들까? 정직한 대답은 놀랄 만큼 매섭게 삶을 추린다. 하루의 폭풍 열에 아홉은 오 년 뒤면 이야깃거리조차 못 된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오늘 이미, 오 년 뒤에 베풀게 될 그 태연함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 둘째 손잡이는 대답 전의 하룻밤이다. 찌르는 것, 분개하게 하는 것 모두에, 같은 날에는 답하지 않는다. 약해서가 아니라 장인의 법도라서다. 좋은 것은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1권은 가르쳤고, 그것은 포도주에서처럼 대답에서도 통한다. 하룻밤 재운 대답이 거의 언제나 더 나은 대답이며, 자주 그것은 아예 필요 없어진다. 그것이 모든 대답 가운데 가장 좋은 대답이다. 셋째는 이 권의 호흡을 실전에 쓰는 것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 세 번의 긴 숨. 인간을 반사와 갈라놓는 그 이십 초다.

평정의 품삯은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 남들에게서 먼저 보인다. 곁에 있으면 남들이 차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가족도, 원도, 일터도 — 이 저작의 모든 공동체는 폭풍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을 적어도 하나는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느 큰 목소리보다 세계 기후를 정한다. 태연함은 공황처럼 옳는다. 다만 더 느리고 더 오래갈 뿐이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성채라 부르고 이 권의 고요의 십오 분이 날마다 쌓는 것이 자란다. 흥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 감정에 맞서서가 아니라 감정 아래에. 평정한 이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 어느 잔치에서나 가장 임재하는 이다. 어떤 들썩임도 그를 끌어내지 못하기에. 어느 불행에서나 가장 쓸모 있는 이다. 어떤 불행도 그를 휩쓸어 가지 못하기에. 그는 다만 날씨와 기후를 헛갈리기를 그만두었을 뿐이다. 해마다 작황이 다르다. 일은 계속된다. 그리고 수십 년으로 헤아린 수확이, 태연함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놓아주기 — 가벼운 손

높은 수련의 끝에 가장 어렵고 가장 조용한 것이 선다. 놓아주기다. 이 저작은 불뚝을 많이 이야기했다. 의식을 불뚝고, 우정을 불뚝고, 기준을 불뚝고. 그 어느 것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불뚝에는 장인의 단계가 있으니, 곧 가벼운 손이다. 움켜쥐지 않고 붙드는 것. 소유되지 않으면서 소유하는 것. 변해야 할 것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 제1권은 의자에 느슨히 앉기를 모든 소유의 시금석으로 삼고, 슈페트레제의 심상으로 늘어 감을 수 확으로 가르쳤을 때 그 바탕을 놓았다. 이 저작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물건도, 소임도, 기력도, 사람도, 세월도. 빌림은 값어치를 깎지 않는다. 값어치의 바탕을 놓는다. 다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타고나지 않은, 그러나 이 권의 모든 수련이 남몰래 함께 길러 온 기술 하나를 요구한다. 편 손으로 붙드는 기술이다.

수련은 작게 시작해 삶과 함께 자란다. 작게는, 이 권이 말을 짚지 않은 채 진작부터 가르쳐 온 나날의 놓아주기다. 저녁마다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 잠. 샘을 닫는 용서. 사랑하는 것을 쉬게 하는 절제. 심어서 땅에 맡기는 나무. 이 장들을 수련하는 사람은 이미 놓아주고 있다. 더 크게는, 살아생전의 내어 줌이다. 수집 장의 묘수를 전채로 돌린 것. 갈 곳 있는 물건들을, 그 기쁨을 아직 제가 누릴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것. 젊은 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참으로 내어 주는 것. 저장고 주인이 술통에 보이는 그 신뢰로. 자꾸 열어 확인하지 않는 신뢰로. 이 권의 물려주기가 가르침이었다면, 놓아주기는 그 완성이다. 더는 붙들지 않는 것만이 물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소임이다. 창립자가 더는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아버지가 더는 모든 길을 가리키지 않고, 장인이 더는 모든 술기를 살피지 않는 때가 온다. 그리고 기술은, 그때에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스스로 고르는 데 있다. 넘겨줌을 소임의 패배가 아니라, 소임의 마지막 주권 행위로 삼는 데에.

가벼운 손을 배우는 사람은, 모든 전통이 약속하되 저마다 몸소 해야 하는 발견을 한다.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발견이다. 내어 준 포도주는 벼의 잔에서 향기를 낸다. 나도 거기 있다. 넘겨준 일은 남의 손에서 계속 자란다. 심었다고, 물려주기의 장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없이 자란다. 작별한 소임은, 그 안에 자리가 없던

것에 자리를 내어 준다. 한가로움에, 손주들에게, 정원에, 오랜 경탄에. 놓아주기는 체면 차린 잃음이 아니다. 그것은 내어 줌의 마지막 형태다. 미래에 제 지금을 선물 하고, 그 대신 어떤 움켜쥔도 결코 주지 않는 것을 받는다. 가벼움을. 옛 심상들은 더 소박하게 말한다. 그 하나로 이 높은 수련의 책을 닫자. 물은 주먹을 쥐어서는 붙들 수 없다. 손을 펴서 떠올리는 수밖에. 순수한 삶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붙든다. 편 손으로, 날마다 새로 떠올리며. 가볍게 붙드는 이가, 가장 오래 붙든다.

에필로그 — 수련이 우리를 되받아 수련한다

스물아홉 가지 수련이 되었다. 고요와 호흡, 물과 불, 빛과 공간. 걷기와 손, 절제와 잠, 시간, 기기에 대한 주권, 그리고 일곱째 날. 말과 예의, 편지, 선물하기, 용서와 감사. 정원과 나무, 여행, 수집과 기억, 물려주기와 아름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탄과 평정과 놓아주기. 어느 하나 어렵지 않다. 어느 하나 이렇다 할 돈이 들지 않는다. 모두 합치면 한 생이다. 그리고 단 하나로라도 시작하는 사람은 — 바로 오늘 저녁에 — 얼마 지나, 이 길에 진지하게 발 디딘 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리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수련이 우리를 되받아 수련한다는 것을. 고요를 찾기 시작하면, 고요가 우리를 찾기 시작한다. 정원을 돌보면, 정원이 우리를 돌본다. 아름다움을 마련하면, 제 삶이 결심이 닿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진다. 그것이 순수한 삶의 마지막 비밀이며, 사실 비밀도 아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진지하게 대접받을 때 응답하는, 그 방식일 뿐이다.

제1권은 어느 저녁으로의 초대로 끝났다. 차려진 식탁, 정직한 병, 침묵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음악. 이 제2권은 어느 아침으로의 초대로 끝난다. 저녁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보여 주고, 아침은 어떻게 살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이 권에서 문 하나만 고르라. 고요의 십오 분이어도 좋고, 날마다의 길이어도, 저녁의 결산이어도 좋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날마다, 요란 없이, 지켜보는 이 없이 그 문을 열라. 이 저작이 청하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니다. 그 이상을 청한 적이 없다. 큰 집은 작은 돌로 지어지고, 위대한 빈티지는 포도밭의 하루하루로, 위대한 삶은 수련된 아침들로 이어진다.

그리고 몇 주 뒤, 몇 달 뒤에 누군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거든 —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이런 달라짐은 사람에게서 보이는 법이니 — 그때 그대는 이제야 온전해진 한 문장으로 이 저작의 대답을 건넬 수 있으리라. 순수함은 길이다. 사랑은 목표다. 수련은 다리다.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